

## 三姓神話 關係 口傳資料<sup>1)</sup>

### [자료 · 1]

제 보 자 : 고태수  
조사일자 : 1992년 7월 28일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1리

근디 그디강 불사약을 캐래 가젠 허면은 사름은 몇 명이나 가며 식량은 어떻게 허고 <XXX>. 사름은 처녀 500명. 백일 기도할 군량미를 가져야 갈겁니다고. 그래서, 칭 제주도를 들어왕 보니깐 좁거든 좁아. 좁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맹해도 그때 영 보니까 그 서대사가 영리헌 놈이라. 거도 곧은 것도 가져나신 생이라 그냥 동쪽으로 그냥 일본을 갔거든. 간 오니까 거형도 넓으니까 짐도 짓고 하간거 하는데 이제 짝을 채워 보거든. 짝을 채우는데 사름 여자 세개가 남아. 그때 고랑부가 제주도에 그냥 이서분 거라. 해서 동의 온평인가 어디 온평. 거기서 만났거든. 게난 거 우리저 고은 하르방 우리 할머니 꿔위는 낙랑 공주엔 해서 낙랑 공주랜 물경랑재 게가지고 현 역사가 지금 2,600 몇년이고 42년인가 되실거라. 근디 소뭇 맺만년 되고랜 일본놈들 출사거련.<sup>2)</sup>

### [자료 · 2] 제주도 사람 생긴 유래

제 보 자 : 오순삼(67)  
조사일자 : 1991년 8월 4일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68번지 원광사

중국 나라도 옛날에 십이제국, 열 두 나란데 말이여. 진시황(秦始皇)이 그 열 두 나라 막 통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스물 일곱살에 천자(天子)가 되었어. 천자. 늙도 말고, 죽도 말고 해 보자고 허는데, 중국에 점쟁이 점지

- 1) 제보자 나이는 모두 조사 당시의 것으로, 관련 문헌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따왔다. 표기도 원문 그대로 이다.
- 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의 1992년도 학술조사 결과이다. 1994년 2월에 발간 예정인 「백록어문」 10집(제주대 국어교육과)에 실릴 예정이다.

는 점술서, 무당들 굿하는 무당서, 각교민는 경서, 다 모아오라 해가지고, 다 모아 가지고 불을 붙여 솔라부는디, 우리 부처님 경전은 책을 카다가 부처님 경전은 노랑해 가지고 안캣어. 안 카니까 이진 부처님 공덕(功德)이라 해서, 책 이름을 황권(黃卷)이라 이름을 지었어. 황권, 누를 황짜(黃字) <노랑허게 XX> 카지 안했단 말이여. 요만쫘은 카더니만 남았이니까, 황권이라 이름지원 허고, 또 하여간, 늙도 말고 죽도 말고 허더니 문딱 실라볼 당 보니까 늙을 로자(노자), 노인(老人)이라 쓰는 글잔 하나 아니 캣단 말이여. 거 이상허지 안허나. 막 한라산 곶이 쌓아 놓고서 불살라 부는디, 노인이라 쓰는 늙을 로자 하나는 아이 캣단 말이여. <XXX 보니까> 진시황, 사람이 늙는 거로구나.

하여간, 그러나, 불로초(不老草) 불사약(不死藥)을 구허자 해가지고 자기 죽도 말아보겐 늙도 말아보겐 허는디, 서시동(徐市童?)이란 신하를 보내되, 서시동인가 허는 그 사람을 보내되,

“동남동녀(童男童女) 삼천명씩 육천명, 지집아이를 삼천명, 소나이 삼천명, 육천명 드리고 네가 가서 불로초, 불사약을 캐오너라.”

보냈는디,

“저 동방(東方) 나라, 동방이라. 소국에 조구만현 나라에 삼신산(三神山)에 있다. 이 약이 있다 한다. 강 캐오너라.”

서시동인 동남동녀 육천 명을 끌고설랑 어디 명이나 안 허른 진시왕한테 죽어질거고, 오랑 허는디 우리 나라 와서, 그 댜 남북이 갈라지지 않을 때 거든. 옛날에니까. 저 묘향산으로, 묘향산이 옛날 백두산이지. 백두산으로 금강산으로. 제주 한라산까지 삼신산이여. 그디 강 좃아보난에, 어시난에. 알게 뭐여, 지네들이. 누를추록 알아져게. 질 약인디. 아 이제는 거기 강 어성 제주도까지 막 오랑 한라산 보난, 한라산 돌아봐도 없단 말이여. 좃지 못허거든. 에이, 이제는 어십디다 가문은 다 죽여불꺼고 허니까, 에이 도망 가볼자. 저 동방디레 가분게 일본(日本) 가비였단 말이여. 일본 가비연 보니까, 강 영 보난에 아 사람이 세 개가 어서. 사람이 서이 떨어져 붙었어. 간 행중에서. 육천 명 간 중에서. 서이가 떨어정 엇단 말이여. 아, 이거 제주 한라산에서 떨어졌구나. 그건 왜 그런고 허니 산에 약 캐래 멩기당 뭐 나무 열매도 타먹고, 7이 멩기도 안허고 자기네끼리만 막 다니거든. 약을 봉그겐 허른. 육천명을 하나들 생이네 세어질 거고? 얼마나 오래 걸리고? 세지도 안해가지고 막 모아지난 다 모아졌다 허영 실러 강 보니까 서이가 엇단 말이여. 아, 이거 제주 한라산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때는 서시동이 지집아이를 세 개 또 이디 보냈단 말이여. 하꼬 짜 가지고 너희들랑 그레 강 그 사람허고 벗허고 살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좃어먹당 문 오랑 보

니까 다 가비여서. 이젠 우리 열대 오랑 따먹고 바당에 뭐 좃어먹고 허는디  
 성산면 신양리(新陽里)엔 현 부락에 내려와서 개앗디 강 뭐 좃어먹당 보니  
 까 동방으로 곱닥한 하꼬가 세개가 동실동실 떠온단 말이여. 아, 이 뭐 떠  
 오네. 서이가 보니까 지네안티 떠오라. 하나씩 하나씩 그놈의 하꼬를 봉가  
 서. 하꼬가 아맹해도 요런 거 이 그릇 논 거 만인 해실 거여. 아매도 사람  
 하나 담은 거난. 아 열앙보난 문딱 지집아이가 세 개라. 하나씩 손잡아 가  
 지고 가는디 어디 가느냐 하면은 신양리서 붙들어 가지고 가는디, 신양리  
 위의 가든 온평리(溫平里)라는 부락이 있어. 온평리 위의 가설랑 거기에 못  
 이 있단 말이여. 연못, 물 말이여. 물 이시니까 여기서 목욕허자. 여기서  
 우리 잔치허자. 지네 <XX> 잔치헌 거지. 잔치해서는 그 때 나무열매 따  
 먹으멍 가다보니까 제주신 가고 보니까 그 맨 뒤 집이 있다. <XXX> 그  
 큰 천지를 이시니까 굴에 들어 가서는 우리가 날 좋으믄 드스믄 올라와서,  
 뭐 먹고 사는디.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 사는 걸 시조라, 고랑 삼성혈(三姓  
 穴)이라 허는디, 온평리 부락 가든 그 못 이름을 혼인지(婚姻池)라고 했다  
 고 허드라. 그 때 해가니까, 그 때 이름이 혼인지라. 못 지짜(池字) 못. 혼  
 인해난 못이라. 그런 역소가 있다고 헤여. 그러니까 그 때는 아무도 없을  
 때에 그게 나오니까, 이리 고랑부 삼성 땅 속에서 나왔다. 땅속에서, 사람  
 나올 리가 있나.’

**【자료·3】 삼성혈**

제 보 자 : 허신생(남·80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주도 회천동 1215번지

“고랑부(高良夫) 삼성(三姓)이 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허지만은 굴  
 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인제 무슨 저 불로초(不老草)렌 허는 약이  
 제주도 한라산에 있다고 하니까, 중국의 그 주장허는 사람이 그 주민들 보  
 고,

“그 약을 아는 분이 이시면 손 들어서 오라.”

허니까, 혼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제가 그 약을 압니덴.”

이렇게 허니까. 이젠,

“그 약을 좀 타오라.”

3) 『백록어문』 9집(제주대 국어교육과, 1992.), pp. 403~405. ‘서시’라고 한 것은 한자의 유사함 때문에 일어난 ‘서불’의 와전이다.

하니,

“혼자 가도 안되고 혼 백명은 이제 가야 합니다.”

허니깐, 허난 그 사람이 100명을 데려 왕 와가지고 불로초 약은 못하고, 이젠 그냥 외국 길에 갈려고 일본드래(일본으로) 강 자기 일행 백사름을 데령 가는다. 그랜 비행기가 어선(없어서) 배로 갈 때니까, 배로 이젠 일본드래 가게 됐다 말이야. 아, 일본에 가당 보니까 고량부(高良夫) 삼성(三姓) 세 사람이 그냥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일본 강 내려보니까, 계난 그 사람들이 이젠 그 굴을 파 가지고 그디(거기) 살았던 말이야. 계난 어떤 사람들은 그 굴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도 말해. 그때 그 삼성 사람들이 7치(갈이) 안 강 떨어져 가지고 굴 파가지고 살안, 계난 삼성혈(三姓穴)이주.”

#### [자료·4] 혼인지 이야기

제 보 자 : 高麗三(男·66)

조사일자 : 1986년 7월 30일

조사장소 : 남제주군 성산면 온평리 983번지

옛날엔 사람들이 전부 동굴생활을 한 건 틀림없는다. 그렇게 하다가 차츰 차츰 동굴생활을 하면서 과실도 따먹고 짐승도 잡아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일기도 좋고 한니까 해변가로 내려온 모양이야. 거기서 동쪽을 바라 보니까 무슨 상자, 께라고도 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을 봐가지고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다, 여기 지금도 잇는 황루알이라고 하는 곳에 닿으니까, 가서 그것을 올려서 보니까, 거기에 오곡 종자와 예쁜 공주가 떠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허는다.

한라산에는 옛날부터 약초가 많이 이섯는다, 지금도 성읍리 저쪽으로 가면 백약봉이 잇는다, 왜 이름이 백약봉이나면 백 가지 약초가 그 산과 주위에만 잇다고 해서 백약봉이랜 허여, 오름도 혼어시 크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약 혼 백미터 정도의 산인데, 그때 진시황이 불로초를 캐오라고 하니까, 그때는 한라산이 아니고 삼신산이라고 했는다, 확실한 이름은 어섯지. 그 동주들이 무슨 말을 하논고 하니까, 틀림어시 약초 캐러 갔다가 낙오된 사람이 잇을 거라고 하면서, 그 배우자를 지어주기 위해서 거기(일본)로 가서 보냈다 이겨여. 경허난 어떻게 된 일이나 허민 약초 캐러 간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큰 욕심을 가지고 그만 일본으로 가부러서.

4)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의 1993년도 학술조사 결과이다. 1994년 2월에 발간 예정인 「백록어문」 10집(제주대 국어교육과)에 실릴 예정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결국은 임금에 다는 설도 있고, 좌우간 정치의 꺾을 했던 허기도 허여. 그런데 그때 간 일행에서 조사해보니까 세 사람의 낙오자가 이섯다는 거여. 그러니까 공주 세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이 쪽으로 보낸 것이 결국은 동쪽 해안으로 제일 먼저 닿은 것이 지금 온평리 황루알로 온 것이여. 그런데, 그때 그 얘기는 일본이라 하지 않고 월랑국(月浪國)이래 해서. 그래서 거기 혼인지에서 목욕도 하고 해서 혼례를 치렀다 해서 온인지래 허여. 방언으로는 '웬죽'이라고도 허여. 옛날 할아버지들이 혼인지를 '웬죽' '웬죽' 했던 허여. 그래서 제주도가 개벽이 되었다는 이야기여.'<sup>5)</sup>

[자료 · 5]

재 보 자 : 송인홍

「고을나, 「부을나, 「양을나」 세 신이 해안을 따라 사냥을 하며 이동하던 중 「온평리」에 있는 속칭 「화성개」에 이르렀을 때, 물결에 떠밀려 오는 세개의 꺾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고을나」가 먼저 발견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세 신이 모여 바라보니 과연 꺾적이 떠밀려 오고 있지 않은가.

이 때 세 신이 유쾌함「sic. #한」 소리를 질렀다고 하여 이 곳을 「화성개」 또는 「왜정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꺾적은 「화성개」에서 한 100미터쯤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닿았는데 세 신인은 그 꺾적을 따라가 이를 열어 보니 세 선녀와 오곡의 씨앗, 그리고 가축등이 있었는데, 그때가 마치「sic. #침」 저녁무렵이라 석양이 바닷물에 비쳐 황금빛 노을이 출렁이때 이 꺾적이 닿은 바닷가를 「황노알」(黃老譚)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데, 오늘날의 이름은 그 「황노알」이 줄어들어서(sic. 줄어들면서) 「황날」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 신인은 말을 타고 세 처녀와 더불어 「삼성혈」이 있는 제주시 쪽으로 떠나는데, (그 때 바위 위에 찍혀진 말 발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함) 「황노알」을 떠난 일행은 바닷가에서 한 1킬로쯤 떨어져 있는 곳에 수목이 울창하고 큰 못이 있어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당도하게 되니, 이 곳에서 말을 내려 못에서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한 다음에, 이곳에서 혼인을 하니,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이 못가의 굴에서 밤을 지냈다고 한다.

이래서 이 못은 세 을나와 세 처녀가 혼인을 했던 못이라 하여 「혼인지」,

5) 제주대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2집, 1987, pp. 417-419.

(婚姻池) 또는, 혼인을 했던 자리라 하여 「혼인지」(婚姻趾)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 세 신인 부부는 초야를 보낸 이케(窟)에서 얼마쯤 살게 되었다. 그들은 가까이 있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다 먹고 하였는데, 이 바닷가를 「연혼포」(緣婚浦, 宴婚浦)라 부르게 되었으며, 세 신인은 여기에 살면서 나무에 오르기와 활쏘기 등으로 재주를 겨루어 형제의 순위를 맥었다고 한다.

【자료·6】 婚姻池

제 보 자 : 현장수

조사일자 : 1975년 2월 28일

조사장소 : 남제주군 성산면 은평리

삼성혈(三姓穴)에서 솟아난 세 신인(神人)이 수렵을 하며 성산면(城山面) 은평리(溫坪里) 경(境)에 이른 때였다. 우연히 바다를 보니 무엇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해변으로 왔다. 자세히 보니 석함(石函)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무언가 귀중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세인들은 일제히 쾌성(快聲)을 올렸다. 그래서 은평리 바닷가 이름을 「쾌성개」라고 한다.

「쾌성개」에서 쾌성을 지른 세 신인은 석함이 떠오르는 바닷가로 내려가니, 물결에 출렁이며 석함이 물으로 떠올라 왔다. 이곳을 「오통」이라 한다. 석함이 떠올랐다고 해서 「오통」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석함이 물으로 올라올 때 사신(使臣)이 말을 타고 먼저 올라오고, 이어서 세 처녀가 오곡(五穀)의 씨와 송아지·망아지 등을 이끌고 올라왔다.

사신이 올라오면서 첫발을 디딘 말 발자국이 지금도 있다. 바닷가 물결이 출렁대는 평평한 바위에 흡사 발자국같이 패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물성개」라 한다.

은평리에서 남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흰죽」이라는 못이 있다. 세 신인은 세 처녀와 더불어 이 못에 가서 목욕을 하고 혼인식을 올렸다. 그래서 이 못을 혼인지(婚姻池)라 한다. 「흰죽」이라는 이름은 「혼인지」의 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혼인지 바로 곁에 자그마한 굴이 있는데, 여기는 세 신인들이 혼인하고

6) 양중해, 「삼성신화와 혼인지」, 『국문학보』 3집,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pp. 62-63. 의 자료.

현대어 표기만 되어 있다. 조사일자나 장소가 나타나 있지 않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마을 이장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다.

같이 잠을 잔 곳이라고 전한다.”

【자료·7】 삼성혈

제 보 자 : 이공용(남·88)

조사일자 : 1983년 3월 1일

조사장소 :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조사자 : 삼성혈에 그 삼성이 있지 아니하우파에? 이에 대해 아시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서.」

삼성혈은 그 근본 탐라 때 그 옛천년 전의 일이라 확실흔건 모르는다. 거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시절이주기. 계난 거 삼성혈이 모흥혈이라 했주기.

「조사자 : 모흥혈예?」

그 터럭모재(毛字)에 일흥재(興字). 그때 날 맨 사름이 터럭 돌안 난 모양이지. 처음에 고씨가 나오고 양씨가 나오고 부씨가 나왔다니. 계서 난형 난제(難兄難弟)라. 거 뉘 씨가 모녀(먼저) 나왔는지 이치로 다 고씨를 먼저 청주마는 건 모르거든 누계가 형이고 아신지(아우인지). 거 고씨가 만하고 권력이 노란 고씨엔 뺨주마는 거 누계가 모녀 나온차례 모르주기. 고씨는 왕이 되고 양씨는 신씨가 되고 부씨는 백성이 되었다니 거.

그래서 서로 나오라 사는디 이젠 성아실(형 아우를) 골리자고 해서 활을 쏘왔주기. 거시기 고씨가 아매 질(재일) 멀리 쏜 모양이지. 활 쏜 디가 서. 저 삼양(원문 주 : 濟州市 三陽洞)디레 가는다.

「조사자 : 예, 저 화북(원문 주 : 濟州市 禾北洞) 넘어 삼양 가는디예?」

그디 활 쏘아난 디가 잇디고. 그디서 활을 쏘니 고씨가 질 멀리 쏜 모양이지. 그 다음이 양씨가, 그 다음이 부씨가 쏘니까. 그걸 아마 증거삼아서.

겐디 이젠 곡석도 웃고 꿩이나 잡아먹고 이렇게 돌아명길 판이지. 해변을 돌아명기다가 보니까 하꾸(상자)가 텃거든.

「조사자 : 바당에 마씨?」

으, 바당(바닷가)에.

“아, 거 이상하디.”고.

함이 서이(셋이) 떠 잇는디 다 하나씩 츠지했지.

「조사자 : 식개가 떠왔구나예?」

7)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pp. 37-38.

으, 모다 차지했는다. 차지하면 올안 보난(열어서 보니) 부인네가 있어,  
오곡씨 갖고 하면. 다 하나씩 차지하면에 살명 그때부터 생산이 되었거든.  
거 하늘에서 함을 느류와준 거지개.<sup>8)</sup>

【資料·8】 초감제

제 보 자 : 안사인

……(上略)…… 영평 팔년(永平八年) 을축(乙丑) 삼월 열사흘날 주시(子時) 생천 고의왕, 축시(丑時) 생천 양의왕 인시(寅時) 생천 부의왕 고평부(高良夫) 삼성(三姓)이 모은골로 솟아나 도읍(都邑)하던 국(國)이래다. …(下略)<sup>9)</sup>

【자료·9】 초감제

제 보 자 : 제주도 삼도동 남무 김씨(戊午生)

조사일자 : 1970년 1월 17일

조사장소 : 북제주군 애월읍 상귀리

영평 팔년(永平八年) 을축(乙丑) 삼월 열사흘날 주시(子時)에는 고의왕(高의 王), 축시(丑時)에는 양의신총(良의 臣), 인시(寅時)에는 부의면(夫의 民) 설립하던 섬이우다. 양의왕도 왕이노라, 부의왕(夫의 王)도 왕이노라, 성(兄)과 아실(아우들) 골리져 옹(옹) 김(김)은, 고의왕은 할로영주(漢孺瀛洲山) 어싱생(御乘生岳) 단골머리(골머리봉) 쌀(矢)을 흔대 노니, 동이와당(東海바다) 광덕왕 진도받쳤고나. 양의신내(良의 臣下) 쏜은 쌀 서이와당(西海바다) 광인왕 진도받쳤고나. 부의면(夫의 民) 쏜은 쌀은 동문밖쳤(東門바깥) 사봉(紗羅峯) 넘어 쌀손거리 지었고나. 성(兄)광 아실 골릴 때에 고의왕은 왕이 되고, 양의는 신내(臣下)가 되고, 부의면(夫의 民)은 면(民)이 설립하여 제주절도 설립함데다.<sup>10)</sup>

【자료·10】 初監祭本 國都分界禱(초감제본 국도장갈임국)

산천영귀, 모흥굴서, 제요도당, 을축삼월, 열사흔날, 자시생한, 고을나을,

- 8) 김영돈, 변성구 조사 자료임. 김영돈·현용준·현길언, 『濟州說話集成』(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85, pp.568-569.
- 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44.
- 10)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83, pp.55-56.



三姓神話 關係 口傳資料

왕오로, 쟁기고, 측시생한, 양을나는, 신하되고, 인시생한, 부을나을, 백성 삼아, 도읍하던, 국임내다, 고랑부삼성이, 모흥굴로, 소사나니, 모라국임내다, 옛날옛적, 고의왕이, 등극할때, 골을, 갈아, 일도성안, 고씨성, 이도산방, 양씨성, 삼도토산, 부씨성을, 살렸읍내다.

(山川靈氣毛興穴西帝堯陶唐乙丑三月十三日子時生限高乙那乙壬午路事爲古丑時生限良乙那隱臣下爲古寅時生限夫乙那乙百姓爲牙都邑何雉國王乃多高良夫三聖伊毛興穴路湧出尼毛羅國王乃多古日古跡高之王伊登極割時邑乙分何如一都城內高氏姓二都山方良氏姓三都土山夫氏姓乙居住式如習乃多)<sup>11)</sup>

11) 文彰憲 騰·文貞奉 書寫, 『風俗巫音』(祝祀文) 卷之一 (筆寫本, 1928騰, 1945書寫, 5면)

이 책에는 “歲戊辰三月日 孤松 文彰憲 騰, 歲乙酉 臘月日 於東京 田村町 寓居 文貞奉 書寫” 라고 기록되어 있다. 戊辰年은 1928년, 乙酉年은 1945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본래 구전자료를 채록한 것은 아닌 듯 하지만, 그렇다고 문헌기록과 함께 다루는 것보다는 구전자료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아 함께 수록한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탐라문헌해제」 쪽을 참고할 것.